

# '92 전국 시립무용단 무용제



'92 THE YEAR OF DANCE  
'92 춤의해



■ 대구 시립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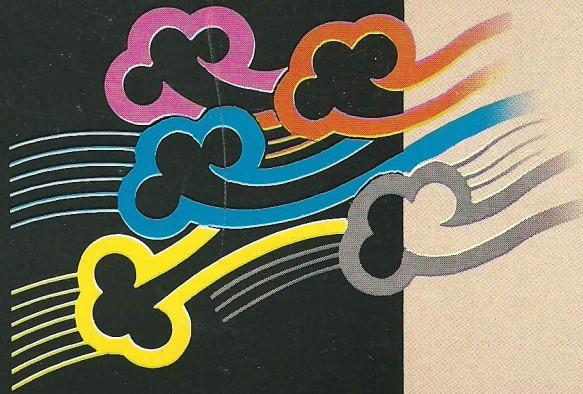
■ 인천 시립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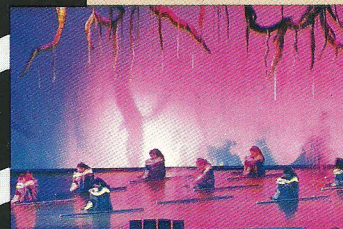
■ 부산 시립무용단



■ 대전 시립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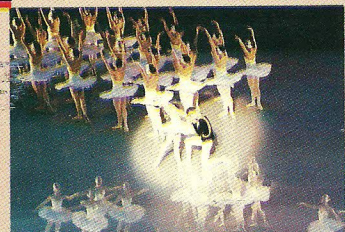
■ 서울 시립무용단



■ 창원 시립무용단



■ 목포 시립무용단



■ 광주 시립무용단

'92년 10월6일~10일, 오후 7시30분

10월 6일(화요일) : 창원시립무용단  
대구시립무용단

10월 7일(수요일) : 광주시립무용단

10월 8일(목요일) : 대전시립무용단  
목포시립무용단

10월 9일(금요일) : 서울시립무용단

10월 10일(토요일) : 인천시립무용단  
부산시립무용단

국립중앙극장 내극장

10. 10(토) II부  
부산시립무용단

## ‘다시 자갈치에서’



### 작품해설

부산지역의 ‘자갈치’는 바다다.  
싱싱한 고기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곳, 역세고 끈질긴  
생명력이 분출하고 있으며 후박한 삶의 땀들이 뒤엉켜 있는  
현장 그 자체다. 이 작품은 ‘자갈치’를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의 다사다난한 삶의 역정을 힘있고  
다양한 우리 춤사위에 담은 창작 작품이다.



안무/홍민애  
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겸 수석안무자

## 작품내용

### ● 프롤로그

자갈치 사람들과 어부들의 삶의 역경과 애환이 군무진의 춤으로 형상화된다.

### 제장 자갈치 사람들

고기잡이 나갔던 친구 일행이 동호와 함께 만선으로 돌아온다. 친구의 아내 영옥과 동숙을 비롯한 자갈치 아낙네들은 반갑게 그들이 맞이하며 축하하는 가운데 자갈치의 하루가 시작된다. 무사하게 돌아온 동호를 반기는 혜진이 그녀는 자갈치에서 생선장사를 하는 영옥의 딸이며 동숙의 친구이기도 하다.

### 제장 갯바람에 살다

자갈치는 거짓과 위선과 탐욕을 모르는 적나라한 삶의 현장이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자갈치 아낙네들을 비롯한 모든 자갈치 사람들은 아직은 원시 공동체적 윤리대로 살아가는 가장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주정뱅이에다 바람기가 심한 칠구는 작부 월선의 뱀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게 된다. 혜진도 뒷골목의 건달 장수에게 반하여 동호와 자갈치를 버리고 도망치고 만다.

### 제장 가면들의 무도회

월선에게 낫이 나간 칠구는 있는대로 주머니를 털어 바친다. 장수의 뱀에 빠져 환락가로 따라온 혜진도 장수 일당의 폭력에 의해 밤무대의 무용수로 변한다.

칠구의 돈을 모두 울궀낸 월선은 인정 사정없이 칠구를 걷어찬다. 사실 월선은 장수와 짝궁인 사이다. 한편 자갈치 사람들은 장수와 월선 일당을 찾아나서 혼을 내고 칠구와 혜진을 구출한다.

### ● 에필로그

동수는 자갈치로 돌아온 혜진과 많은 자갈치 사람들의 축복속에 곁 혼한다. 칠구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다시 술주정이나 하며 뺨길을 나가기만 기다린다. 그러나 자갈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활력에 넘치는 그들만의 알찬 삶이 계속된다.

## 출연

영옥(50대)/자갈치 아지매

칠구(50대)/영옥의 남편, 어부

혜진(20대)/칠구의 딸

미선(50대)/생선장수

동숙(20대)/미선의 딸

동호(20대)/미선의 아들

월선(20대)/술집작부

장수(20대)/뒷골목 건달

어부들/최찬열 홍기태 이성원 김병주 전현철

88건 달들/남자—성동현 이 성

여자—장은미 김미나

조영선

최찬열

이윤희

최길자

강휘지

홍기태

이송희

장래훈

작부들/서정숙 강영미 장혜정 임은아 김미나

송현주

경매인/김용목

옛장수/이 성

열쇠장수/이성원

잡상인/성동현

댄서/이현숙 정진희

처녀들/정진희 김향숙 박미령 박선영 문선애

최순원

사람들I/이현미 김영희 서순덕 서현미 오숙례

강미향 황선희 박정숙 원유화

사람들II/김동숙 전유경 허복희 이예주 서정은

김주영 황보영 이지향 심재숙

